

민선6기 새로운 시작, 시민이 행복한 아산



복 기 왕 | 아산시장

1968년 충남 아산 출생
고려대학교정책대학원 도시지방행정학 박사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2010년 민선 5기 아산시장
2014년 민선 6기 아산시장

▲ 당선소감

먼저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를 다시 한 번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해주신 30만 아산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또 한번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시민을 위한 행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민선 5기에 기초하고 시작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기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바람을 들었다. 그 바람 속에는 지난 4년간 시정을 펼쳐가면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점도 많았다.

앞으로 새롭게 일어나갈 민선 6기는 그동안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며 직접 피부로 느낀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2016년 전국체전 준비 본격화를 통해 성공적인 전국체전으로 만들겠으며, 가장 시급한 문제인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해 가겠다.

아울러 대중교통체계를 확대하여 교통소외지

역이 없는 대중교통 혁명시대를 열어가고, 신도시 복합문화정보센터 구축 등 아산시의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더 큰 성장을 이루어 내겠다.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도 더 잘할 수 있다. 민선 5기에 시작한 일 민선 6기에 책임지고 완성하겠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고, 명품도시 아산시민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시정을 펼쳐나감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 가겠다.

▲ 아산시 주요현안 과제

아산시의 주요 현안과제로는 『2016년 전국체전 성공개최』 준비, 『종합병원』 유치,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이다.

2016년에 아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단순히 전국단위 체육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산발전을 1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기회는 물론, 나아가 충남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2016년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를 본격화 해 갈 예정이다.

우선 이순신종합운동장 시설 확충과 실내수영장 및 종합스포츠 센터 건립은 기본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예정에 있으며 축구장과 모종시민체육공원조성,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전국체전 남측 주 진입도로 이용 될 외암대로 확포장공사도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순조로운 진행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인 종합병원 유치문제는 민선 6기 핵심공약이며,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4월 폐업된 한사랑 아산병원이 머지않아 정상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의료공백에 대한 시민의 불만사항도 어느 정도 해결될 여지가 보여진다. 그러나 아산은 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갖춘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하반기 대학병원과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민선 6기 중에 종합병원이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세 번째 천안아산 복합문화정보센터 조성사업 추진이다. 아산과 천안은 지난해부터 주민이 행복한 지역생활권을 만들어 가기 위해 중추도시 생활권을 구성하고, 상생과 협력을 위한 지역발전 모델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사업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충남도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행복생활권을 만들어 가겠다.

▲ 역점사업 및 공약

아산시는 올해 민선 5기 공약이행분야 충남 유일 최고등급(SA)을 획득하였다. 민선 6기 역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행복아산 만들기 기본 좋은 10대 약속』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집5 _ 민선 6기! 충청남도를 품다

10대 약속은 민선 5기의 성과를 더 확대하고 아산의 도시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 해결을 위해 『3대 핵심 공약과 7대 주요과제』로 나뉘어져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5개 분야에 81개 추진과제』로 분류되어 있다.

3대 핵심공약으로는 시민들과 함께 유치한 2016년 전국체전 성공개최, 종합병원 유치,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편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7개 주요과제로는 안전한 아산, 따뜻한 복지, 좋은 일자리 창출,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활짝 웃는 농민,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혁신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아산시는 공약 이행을 위해 공약사업별 최초 검토에서 완료까지 추진과정을 실명 관리함으로써 책임성을 강화해 가고, 시민 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시민과 함께 발전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민선 6기에 들어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꼽는다면 2016년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다. 전국체전 유치는 30만 아산시민과 함께 이뤄낸 소중한 성과다. 이 성과가 빛이 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공개최를 통해 아산의 발전도 10년 더 앞당기고, 나아가 충남발전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020년 아산의 미래비전

아산시는 지난 2004년 인구 2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지난 10년간 신도시개발 추진, 수도권전철개통, 광역교통망 지속 확충,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급속한 인구유입을 가져왔으며, 올 2월에는 인구 30만을 돌파하여 중부권 거점 경제 자족도시로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2020년에 인구 40만 명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아산에는 세계 굴지의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2,000여개의 기업체가 이미 입지해 있고, 여기에 현재 조성중인 탕정산업단지와 아산제2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신창 선장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첨단 디스플레이 R&D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그 어느 도시보다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일자리가 가장 풍부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또한, 2018년에 개통 예정인 서해안 복선전철과 당진~천안 고속도로, 평택~부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아산은 서부권 물류 및 교통중심지로도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경제 산업분야에서의 성장은 물론 현재 준비 중에 있는 201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유치, 중앙도서관과 문예회관 건립, 세무서 유치, 신도시지역의 복합문

화정보센터 건립 및 경찰대학 이전, 충남과학교육원 이전 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나면 2020년 아산은 누구라도 머물고 싶은 대한민국에서 정주여건이 가장 좋은 희망도시가 될 것이다.

▲ 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

제 고향을 위해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년 전 저는 제 고향 아산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지난 4년간 기초하고 시작한 일들을 민선 6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

시민이 행복한 일이라면 앞장서겠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도전을 기회로 삼아 더 큰 성장을 만들어 내겠다.

민선 5기 시작과 끝을 시민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해주셨듯이 민선 6기 시작과 끝도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더 큰 아산을 위한 항해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